

협회안내

대한설비건설협회 주관 공동구매 설명회 개최

- 원칸네트웍스(대한설비건설협회 공동구매 구매대행업체) 주최 -



▲ 대한설비건설협회 자재공동구매 대행업체인 원칸네트웍스는 지난 9월 18일과 23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비자재 공동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주관하는 설비자재 공동구매 대행사인 원칸네트웍스(대표 홍평우)는 지난 9월 18일과 23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자재 판매사와 구매사를 대상으로 ‘대한설비건설협회 주관 공동구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설비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판매사 임직원 40여명과 시공·구매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총괄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비건설업계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총체적 위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구매를 우선 실시키로


협회안내

했다”고 강조 했다.

또한 “협회는 설비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구매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국토부가 우선구매 요청을 함에 따라 그동안 원자재 공동구매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원컨네트웍스에 구매대행을 맡겼다”며 “협회가 추진하는 공동구매가 판매사와 구매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컨네트웍스 김현희 사업총괄본부장은 “현 상황에서 공동구매방식을 통한 원자재 구입은 개인적인 판매 및 구매 때 보다 10%이상 단가를 줄일 수 있다”며 “원컨네트웍스를 통한 공동구매는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판매망 확보 및 구매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모(某) 회원사 자재구매 담당은 “공동구매가 원자재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동구매에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현재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번 공동구매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최근 국제적인 철강재·원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세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설비자재 공동구매에 나서 9월 30일 제1차 입찰, 10월 27일 제2차, 11월 25일 제3차에 걸친 공동구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미있는
건교상식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다이나마이트의 발명 이래 다양한 터널굴착기술의 발전은 인류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조선 시대 과거를 보러 가던 영남의 선비들이 문경새재를 넘고, 영동 지방의 보부상들이 대관령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여행객들은 터널을 통과해 빠른 속도로 산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도달합니다.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터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5호선은 한강 하저를 통과합니다. 한참 공사 중인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에서도 지난 2007년 11월 8일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터널 관통에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다 밑을 통과하는 터널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 해협을 통과하는 유로터널(50.5km)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저 터널은 이웃나라 일본에도 있습니다. 혼슈 섬과 홋카이도 사이의 해저를 통과하는 세이칸(Seikan) 터널은 전체 연장이 53.85km(해저부분 23.3km)로 현존하는 세계 최장의

터널입니다. 신칸센으로 시속 200km정도로 통과한다고 해도 15분 이상이 걸리는 길이입니다.

그러나 곧 세이칸 터널은 2010년이면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Gotthard Base Tunnel)에게 세계 최장 터널의 명예를 넘겨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10km가 넘어가는 장대터널들은 주로 도로터널 보다는 철도터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터널의 경우 안전, 환기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철도터널에도 방재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는데, 예를 들어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에는 안전을 위해 2개의 중간 구난역(救難驛)과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재 시설이 함께 설치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장터널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006년 12월 7일 관통된 영동선의 솔안터널로 총 연장은 16.2km입니다.